

“중도입국 자녀, 아시나요?”

신임 마주협 상임대표 정호스님

다문화 2세 경기도에만 8000여명
쉽터 어울림마당 복지센터건립 등
한국정착 지원·종령기구 편입요청



오산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사진)이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마주협)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정호스님은 앞으로 2년 동안 진 오·도제·지관·호산·정문스님 등 5명의 공동대표와 함께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를 이끈다. 정호스님은 지난 21일 조계종 전 법회관 3층 사무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불교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정호스님은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를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입국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에만 8000여 명의 15~18세 중도입국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

감을 느껴 학업을 포기하곤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입국 자녀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호출로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경우를 말한다.

스님은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관심 밖에 놓인 2세의 아픔을 살피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인권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던 것과 달리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2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호스님은 “자국 스님들이 운영하는 이주민 법당이나 쉽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다문화 2세와 그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 등을 개최하는 등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스님과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주협은 그밖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복지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종단 종령기구로의 편입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호스님은 “소외계층인 이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종단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령기구로의 편입과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 지난 20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기자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자승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정스님.

한가람재단, “아프리카 학교건립 흐뭇”

보리가람농업기술고 95% 완공
기자재 지원금 1000만원 전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원정스님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기자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금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짓고 있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상과 책장,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 지원에 쓰인다.

원정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과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인연이 닿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 불교가 아프리카에 처음 전해지는 만큼 탄자니아 학교 건립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는 9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 명예훼손·모욕준데 ‘유감’ 종단 관련한 내용 다루지 않겠다”

‘생선항기’ 정봉주, 종단·조계사에 사과

팟캐스트 ‘생선항기’ 등을 통해 조계종단에 대해 막무가내 비난을 쏟아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조계종단과 조계사측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조계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0일 이세용 조계사 총무실장과 공승관 전 조계종 총무원 호법팀장 등에 보낸 서신을 통해 “팟캐스트 생선항기,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 기자회견 등 인터넷 방송 및 공개적 장소에서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만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역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생선항기’에서 모욕감을 느꼈만한 표현을 사용하든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앞으로 더 이상 조계종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운영, 진행이나 패널로도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사과는 이세용 총무실장과 공전 호법팀장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서 지난 행동에 대해 참회의 뜻을 밝히고 취해진 조치다. 정 전 의원은 수차례 팟캐스트 ‘생선항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계종 스님들을 권력과 돈을 탐하는 무리, 중놈 몇몇이 떡고물을 나눠먹는 조계종, 조계종에 대해 김정은 체제, 호법부는 강아지라는 식의 무분별한 비난을 가했다.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욕설과 막말, 헐뜯기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조계사 신도 이 모씨와 이세용 총무실장, 공승관 전 팀장으로부터 모욕과 상해 등으로 인해 고소당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접수, 4차례의 공판을 진행해왔다.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왔던 이세용 총무실장 등은 사과문을 받은 뒤 유감 표명과 사과를 수용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난민생존권 지킬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 개선해야”

사회노동위, 세계난민의날 성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난민신청자들은 힘겹게 (한국에) 입국해도 자유로운 생계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지역건강보험체계, 아동복지체계 등에서 배제를 당한다”며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는 난민 신청자가 자기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노동위는 “한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조라고 자랑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의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허부 결정을 받아 국내에 들어올 수도,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돼 송환대기실에 갇혀버린다”며 “이제 한국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난민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성화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성화스님, 수행사사에 정오스님을 임명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성화스님(사진)은 성남 한솔종합복지관장 등을 역임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했으며, 현재 장안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수행사사 정오스님은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양평 윤필암 주지, 가평 대원사 주지 및 총무원

홍다영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대중공의 간과하지 않길”

비구니회, 운영위 앞서 입장 발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는 오는 7월7일 오후1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4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의 건과 함께 총무활동 보고의 건, 장기사업 심의의 건, 회원 징계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에 앞서 총무원장후보추천단단을 706명 이내로 확대한 ‘총무원장선출예관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공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구니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총무

원장 선거제도 논의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는 비구니 스님들은 우선 종단이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공의를 가늠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구니회는 “종단은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최고의 가치와 중도로서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큰 틀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비구니들은 제도로부터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능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비구니 스님들의 견해가 현실감 없는 견해로 일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청와대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에 계한스님을 임명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비구니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와 청와대에 인사검증 과정 공개와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제14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환)에 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한 정경호 경사의 뜻을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 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 3인(국)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 3인(국)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상금 : 총액 4,000만 원 이내

* 오디오·영상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하여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 제14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6년 9월 19일(월) ~ 9월 30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료)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

사회적경제, 불교와 만나다!

- 불교신문 부설, 사람과 사회적 경제 조계종 스님 연수교육

연수교육

내용

2016. 7. 6(수) 10:00 ~ 17:00

2016. 7. 7(목) 10:00 ~ 17:00

▽ 사회적경제 의미와 인증 프로세스

- 사람과사회적경제 박주연 본부장

▽ 사회적경제 소셜미션 발굴 및 수립과정

- 캠프 김영석 이사

▽ 협동조합의 정신과 성공 케이스 스토리

- 두레종합건설협동조합 박성철 이사

▽ 공정무역 의미와 사업 방안

- 아름다운커피 한수정 그룹장

▽ 사회적경제 금융 활용 방안

- 한국사회투자 이경실 사무국장

▽ 사회적경제 OPEN TALK

- 참여 강사진

신청안내

대 상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주지스님 및 소임을 보시는 스님(20명 내외) ※ 이수 시, 연수교육 점수로 인정됩니다.
교육기간	2016년 7월 6일 ~ 7월 7일, 10:00 ~ 17:00
장 소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1층 지혜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교육비	100,000원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humanse.org@gmail.com (매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 : 스님연수교육_홍길동)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1-239913 사람과사회적경제 (입금 시 보내시는 분 성함(법명)으로 입금)
문의	사람과사회적경제 02-739-7008

주관 불교신문부설 사람과사회적경제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